

클락 피녹의 열린신학*

Clark H. Pinnock's Openness Theology

박태수 (한국성서대학교/조직신학)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신학자 중 신학적 논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클락 피녹의 열린신학을 검토하고 비평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 그의 생애에 나타난 신학적 여정을 살펴보고 피녹이 제시한 신학적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그는 모험 모델과 비모험 모델의 비교를 통해 열린신학의 신학적 우위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신학적 해석학의 중심에 ‘사랑’을 핵심으로 두었고, 신인동형론적 성경구절에 대하여 문자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론에서는 열린신학의 논증을 살펴보았다. 피녹은 열린신학은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으며, 특히 신인동형론적 성경적 내러티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이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위기를 당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철학적으로, 피녹의 열린신학 원동력을 인간의 자유의지론으로 보았다. 피녹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론은 모든 신학적 주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 또한 자유의지론을 통해 악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신학적으로 피녹은 하나님

* 본 논문은 2010년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학술평발전연구기금으로 연구한 논문임을 밝힌다.

* 논문 접수일: 2011. 1. 1. 수정 접수일: 2011. 2. 20. 게재 확정일: 2011. 2. 26.

의 본질은 변치 않으나 하나님의 행위와 지식 그리고 경험 등은 변하는 분으로 보았다. 또한 피복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중적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신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셨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피복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무시간성의 개념이 아닌 연속성으로 설명한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 안에 실재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피복은 열린신학이 전통적 신학보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에서 필자는 열린신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루었다. 피복의 열린신학의 긍정적인 면은 열린신학이 전통적 신학보다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깊게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복의 열린신학의 부정적인 면은 피복의 신학이 복음주의 신학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속성들을 변개하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심각하게 폄하하였다는 것이다.

주제어 : 열린신학, 클락 피복, 미래, 하나님, 자유의지론, 예지

1. 서 론

열린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락 피복(Clark Pinnock, 1937~2010)만큼

¹ 열린신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열린신학(openness theology), 열린 유신론(open theism), 자유의지신론(free will theism), 열린 관점에서의 하나님(the open view of God), 관계적 유신론(relational theism), 인격적 유신론(personal theism), 현재주의(presentism), 일관된 알미니안주의(consistent Arminianism) 등으로 불리워진다.

상반된 평가를 받은 21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도 없을 것이다. 그는 담대한 복음주의자로 또는 열린신학의 창시자로 인정받는 반면 21세기의 이단자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피녹의 신학을 복음주의의 신학의 전통을 이은 정통주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변개시킨 이단성을 가진 신학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² 그들은 피녹의 열린신학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 그리고 섭리에 관한 개혁주의 신학을 도전한 매우 위험한 신학이라고 지적하였다.³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이 복음주의 안에서의 하나의 암(a cancer)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일반성도의 삶에 재난의 결과를 가져오는 신학이라고 보았다.⁴

이에 반하여 진보적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피녹이 반 어거스틴적 개혁주의자로서 뛰어난 지적인 순례의 길을 추구한 신학자로 보았다.⁵ 또 다른 이들은 피녹이 20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기독교 변증학자이며 새로운 신학의 개척자로서⁶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한 학자로 보았다.⁷

이와 같이 이중적 평가의 중심에 있었던 피녹의 신학이 복음주의 신학자에게 혹독한 비판과 거부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로 찬사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신문에 있어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적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의

² Norman L. Geisler and H. Wayne House, *The Battle for God: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Neotheism*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1), 289.

³ John M. Frame, *No Other God: A Response to Open Theism* (Phillipsburg, N.J.: R & R Publishing, 2001), 205.

⁴ 복음주의 신학자인 라저 리콜(Roger Nicole)은 열린신학은 복음주의 안에 암과 같은 존재이며, 제거해야 할 신학사상으로 보았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Bruce A. Ware, *Their God is Too Small: Open Theism and the Understanding of Confidence in God* (Wheaton: Crossway; 2003) 참조.

⁵ Stanley Grenz, "Fideistic Revelationalism: Donald Bloesch's Antirationalist Theological Method, in *Evangelical Theology in Transition: Theologians in Dialogue with Donald Bloesch*, ed. Elmar M. Coly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36. 스탠리 그랜츠도 피녹이 20세기 신학의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신학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칭송도 아끼지 않았다.

⁶ Grenz, 36.

⁷ Barry L. Callen, *Clark H. Pinnock: Journey Toward Renewal* (Nappanee, IN: Evangel Publishing House: 2000), xxii.

신론을 벗어나 새로운 모델의 하나님 즉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였다. 그는 전통적 예정론과 하나님의 무시간성(timelessness) 그리고 불변성(immutability)과 하나님의 예지성(foreknowledge) 등, 주권적 하나님을 강조하는 전통적 신론에 의문을 품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를 열린신학이라 불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학적 논쟁위에 있었던 피녹의 열린신학 사상을 검토하고 비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개의 단계를 거친 후 결론에 도달하려고 한다. 첫째, 먼저 피녹의 생애와 저술을 통해 그의 신학의 여정을 살펴보고려고 한다. 둘째, 그의 신학의 방법론을 검토하려고 한다. 셋째, 피녹의 열린신학의 핵심개념을 연구하고 그의 사상을 검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피녹의 신학 사상을 비평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생애와 저작

피녹은 1937년 2월 3일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에서 침례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모는 1890년대에 영국 감리교 선교사로서 나이지리아(Nigeria)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조부모는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난 후 1920년에 캐나다로 이민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선교사역을 통해 당대의 기독교인들보다 개방되고 열린 사고를 추구하였고 기독교의 경건성을 강조하는 『나이지리아인의 낭만적 선교(Romance of Missions in Nigerian)』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조부모의 영향은 피녹에게 개방적인 사고와 학자적인 기질로 전달되었다. 피녹은 어린 시절에는 토론토에 위치한 팍 로드 침례교회(Park Road Baptist Church)에 출석하였다. 그 교회는 20세기에 미국을 휩쓸었던 진보적 신학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피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피녹은 그의 나이 13세에 신실한 기독교

교인이었던 그의 조모 마도라(Madora)와 주일학교 교사이던 프랭크 엘리어트(Frank Elliott)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게 된다.⁸ 피녹은 이처럼 신학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교회에서 엘리어트와 마도라를 통해서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영향을 받아 희석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녹은 토론토 침례교회에서 개최하는 특강에 참여하여 모세오경과 시편 그리고 다니엘서에 대한 고등비평적 접근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에 불과했던 피녹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다.

피녹 신학의 본격적인 여정은 2차 대전 후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계열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Youth for Christ’⁹와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으며 성경중심의 기독교 신앙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성경을 더 배우기를 원했으며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캐나다 케스윅 성경사경회(Canadian Keswick Bible conference)¹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당시 부흥사였던 찰스 풀러(Charles Fuller)의 ‘옛 신앙 부흥시간’과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의 ‘결단의 시간’ 등,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접하게 되었다. 특히 IVP 출판사는 그의 신학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피녹은 IVP를 통해서 칼빈주의 신학자인 존 머리(John Murrly),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칼 헨리(Carl F. H. Henry), 제임스 팩커(James L. Packer) 등의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는 복음적 스콜라

⁸ Callen, *Clark H. Pinnock: Journey Toward Renewal*, 17-18. 프랭크 엘리어트는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 대한 확신을 피녹을 가르쳤다. 그의 조모 마도라는 피녹에게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였다. 이들의 헌신과 가르침이 이 어린 피녹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영적 여행이 시작되었다.

⁹ Callen, *Clark H. Pinnock: Journey Toward Renewal*, 19. Christ for the Youth는 오스왈드 스미스(Oswald J. Smith)에 의해서 세워진 캐나다에 토론토에 소재한 선교를 강조하는 초교파적 성서교회의 모임이다.

¹⁰ 이러한 부흥사경회는 무디의 부흥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캐나다 케스의 성경사경회는 성경공부 기도 경건생활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었다.

주의와 보편적 이성주의에 등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경직된 사고가 아닌 보다 폭넓고 개방적이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195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녹은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의 빅토리아 단과대학(Victoria College)에서 본격적인 학문을 수학하기 시작하여 고대근동연구라는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뛰어난 학문적 소양이 인정을 받아서 하버드대학교와 영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피녹은 에프 에프 브루스(F. F. Bruce)의 지도를 받기 위해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에 입학하였다. 그는 대학원에서 고대근동언어를 공부한 후 그의 은사 부루스에게서 신약학을 본격적으로 지도를 받았다. 부루스의 논문지도하에 피녹은 “바울서신에서의 성령의 개념(The Concept of Spirit in the Epistles of Paul)”을 연구하여 철학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그는 논문에서 기독교 교회 역사는 성령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설교나 목회에서 성령의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보았다. 학위를 취득 한 후 피녹은 1963년 성령론에 관한 중요한 논쟁들을 펼침으로써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중요한 신학자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의 지도교수의 권유로 2년 동안 영국에 더 머물며 강의조교로 성서비평학과 주해에서 뛰어난 강의를 함으로써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피녹은 그의 생애에 중요한 인물로 여기던 기독교 보수적 변증학자인 프랜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를 만나게 되었다. 피녹은 한여름 동안 스웨덴 휴에모스(Huemoz)에서 열린 쉐퍼의 Labri Fellowship에 참여하였다. 그 후에도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쉐퍼와 함께 지내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철학적 물음에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지성적인 지평을 넓혀갔다. 쉐퍼는 피녹에게 기본적인 신학적 본능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였다.

피녹이 학위를 마쳤을 즈음에 복음주의는 성경의 영감설과 성경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자유주의 신학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여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반지성주의자로 사회문제 등에 무관심한 자로 매도하여 공격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기에 피녹은 웨퍼로부터 정통개신교가 신학적으로나 지적으로 만족할 만한 학문적 변증을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지성적 분석과 비평을 통해 복음적이면서도 학문적인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복음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준다는 확신은 피녹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변증하는 역사적 개혁신학을 전개하게 하였다. 하지만 후에 피녹은 웨퍼의 철학과 신학적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¹¹

1965년 피녹은 뉴 올렌즈 침례신학대학원(New Orleans Baptist Seminary)에 신약학조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었다. 그는 그 대학에서 신약학보다는 조직신학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 시기에 그는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순절 교회에 출석하며 성령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론에 더욱 깊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후에 그의 체험은 오순절 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녹의 뉴 올렌즈 침례신학대학원교에 재직 시기인 1965년부터 1969년까지는 남침례교단의 신학교수들 사이에 성경 무오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였다. 피녹은 1967년 『성경적 무류성 대한 변증(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이라는 책을 통해 성경의 무오성이 성경의 영감교리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야 할 교리임을 강조하였다. 1969년에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로 옮기게 되었고 1971년에는 『성경적 계시(Biblical Revelation)』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성경의 영감설에 대하여 전통적 입장을 옹호하였다. 이 책은 비 비워필드(B. B. Warfield) 이후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에 대하여 뛰어난 학문적 진술을 하였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¹² 같은 해, 피녹은 『미래를 위한 신학(Toward a Theology for the Future)』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앞으

¹¹ 피녹은 프란시스 웨퍼로부터 좋은 학문적 변증학을 배웠다. 하지만 후에 피녹은 프란시스 웨퍼가 비록 성경에 충실하고 현대적 사고에 경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뛰어난 학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¹² Callen, Clark H. Pinnock: *Journey Toward Renewal*, 54.

로 다가올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복음주의자들이 담대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1972년에는 *Live Now, Brother*와 *Truth On Fire: The Message of Galatians*라는 두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피녹은 이 두 책에서 복음을 지키는 담대한 방어자가 될 것을 주문하고 전통적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신학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1974년에 들어서 피녹은 전통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전환을 시도한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성도의 견인 교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대한 연구에서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짐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논리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Unraveling Reformed Scholasticism”이라는 소논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진정한 반응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즉 이중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하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는 1974년에 트리니티를 떠나면서 칼빈주의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정성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그 후에 피녹은 1974년에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대학교(Regent University)로 옮겨 1977년까지 조직신학을 가르쳤고 197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에 소재한 맥매스터신학교(McMaster Divinity Collage)에서 조직신학교수로 재직하며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였다. 1980년에는 *Reason Enough*라는 책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1984년 *The Biblical Principle*에서 성경의 진실성은 성경 자체가 무오하다는 사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관련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성에서 온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1987년에 남침례교 성경무오성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그가 종전에 가졌던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목적적 무오성(Inerrancy of purpose)을 옹호하였다. 그는 전통적 성경관이 인간의 역할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성경의

절대적 완전성을 강조함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며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신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피녹은 자신이 출발한 전통적 개혁주의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알미니안주의 신학 또한 교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1990년대에는 또다시 신학적인 변신을 시도하였다. 그는 알미니안 신학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학적 모순이라고 보았다. 피녹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저서들을 연이어 집필하며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¹³ 1994년에 피녹은 그의 신학적 동반자이며 철학적 이념을 공유하는 열린신학자들인 리차드 라이스(Richard Rice), 존 샌더스(John Sanders), 윌리엄 해스커(William Hasker), 데이비드 배싱거(David Bashinger)와 함께 『하나님의 개방성(The Openness of God)』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신학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일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될 때까지는 하나님도 정확히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역사는 하나님의 행위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결정과 행위가 결합된 결과로 보았다. 피녹은 자신의 열린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를 동조하는 신학자들과 함께 열린신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피녹은 열린신학의 주장들을 복음주

¹³ 피녹은 캐나다 맥매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는 기간 동안에 학문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활동하였고 이 시기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한 저술들을 집필하고 출판하였다. *The Grace of God, The Will of Man: A Case For Arminianism* (1989)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는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였다. *Tracking the Maze: An Evangelical Perspective on Modern Theology* (1990), 그리고 *Flame of Lov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1996)을 통해 성령의 관점에서 신학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였으며,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계시등과 연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런데 *A Wideness in God's Mercy: The Finality of Jesus Christ in a World of Religions* (1992)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일부를 구원하고 나머지는 정죄된다는 예 정론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 책을 통해 궁극적인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Searching for an Adequate God: A Dialogue Between Process and Free Will Theists* (2000)를 통해 피녹은 과정신학과 상호신학적 대화를 통해 현대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 찾기를 시도하였다.

의 계열의 신학 잡지인 「크리스천 투데이」와 「TVP」를 통해 게재하고 출판함으로써 그 불씨를 당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내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과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대변하므로 1994년 이후 이 신학적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어졌다.

또한 피녹의 열린신학은 복음주의신학회(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에서 심각한 논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계열의 분열양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그는 2000년에 피녹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강연하였던 것을 *Most Moved Mover*¹⁴라는 책으로 출판하면서 그 논쟁을 절정에 도달하게 했다. 그러나 2001년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열린신학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¹⁵ 또한 미국의 각 교단들은 이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열린신학의 문제점 발표하며 심각하게 대응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녹은 열린신학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계속되어 2003년에는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복음주의신학회학술대회에서는 피녹의 멤버십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결과는 의외로 피녹을 지지하는 쪽으로 승부가 났다. 이 과정에서 열린신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노만 가이슬러는 복음주의신학회를 탈퇴하는 등 복음주의 신학회의 분열양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피녹은 맥매스터 신학교를 2002년에 은퇴를 하였으나 뛰어난 논리적 접근을 통해서 열린신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중요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열린신학을 계속적으로 대변하였다. 피녹은 2010년 5월에 그의 지병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학계에서 은퇴를 선언하였고 2010년 8월 15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투병 끝에 운명하였다.

¹⁴ Clark H. Pinnock, *Most Moved Mover: A Theology of God's Opennes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1). 피녹은 이를 통해 성경적 논증과 철학적인 논증, 그리고 실천적 논증을 제시함으로써 열린신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¹⁵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채택한 열린신학 반대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들의 모든 미래의 결정과 행동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에 대해 전적이고 정확하며 무오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가르친다고 믿는다.”

2.2. 피녹의 신학 방법론

그는 복음주의 신학자들과는 다른 신학방법론을 제시하며 신학 해석을 시도했다. 피녹은 신학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론을 사용한다. 첫째, 성경을 해석에 있어 객관적인 성경해석 보다는 선이해적 해석(preunderstanding of the interpreter)을 도입했다. 그는 신학 연구에 자연과학의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신론에서 기본적 하나님의 정체성 연구를 위해서 구체적인 모델이 성경에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피녹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 모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았는데 하나의 모델은 비-모험적(Non-Risk model) 견해이다.¹⁶ 이 모델은 하나님을 철저한 군주로 본다. 이 군주적 모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해한다. 즉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모든 것을 정할 뿐 아니라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단 한 번도 위기를 격지 않는 분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지 하나의 환영에 불가할 뿐이며 하나의 인형과 같은 존재에 불가하다. 피녹은 이러한 비-모험적 모델이 바로 고전적 유신론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모델은 모험적(Risk model) 견해이다. 그는 이 모델에서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한 부모와 같고 언제나 섬세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며 개방된 자세로 위기를 받아들릴 수 있는 모델로 보았다.¹⁷ 이 모델의 하나님은 세상을 경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며 인간과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분으로서 우리를 섬세하고 민감하게 돌보는 분로 나타낸다. 피녹은 이 두 모델의 비교를 통해서 전통적 신론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며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독재자적인 모델로 보았다. 이와 같이 피녹의 열린신학은 하나님을 개방된 하나님으로 분류하여 두 모델 사이를 경쟁적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마치 두 모델을 서로 경쟁적 체제로 두어 비교우위를 보여 줌으로

¹⁶ Pinnock, *The Openness of God*, 103.

¹⁷ Pinnock, *The Openness of God*, 103.

써 신학적인 우위를 점유하고자 하였다.

둘째, 피녹은 “사랑”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해석을 시도한다. 피녹은 사랑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이해한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 이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¹⁸ 피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성이나 주권성과는 달리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았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 속에 하나의 목적 아래 통일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공동체로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특징은 사랑에서 기인했다고 보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랑을 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므로 인간이 자신과 협력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피녹은 “우리의 핵심관심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자유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¹⁹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는 직설적 주석과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적 성경구절을 강조한다. 그는 신인동형론적 구절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낸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신인동형론은 하나님을 사람의 형태로 상징한 비유적 표현이고 이러한 비유적 말씀을 통해 제한적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해 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녹은 신인동형론적 구절이 단순한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역동적이며 관계적인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¹⁸ Clark H. Pinnock, ed., *The Grace of God and the Will of Man*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1989), 35. 또한 다른 열린신학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리처드 라이스(Richard Rice)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근본적인 신적속성으로 보았다. 존 샌더스(John Sanders)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린신학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¹⁹ Pinnock, *The Most Moved Mover*, 3.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는 것은 전통적인 신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복음의 핵심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16절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근본적 속성이 된다고 한다는 점에서는 성경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속성들,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무한성, 영원성, 거룩성, 공의, 진실, 불변성을 축소하지 않는다. 또한 열린신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기적인 사랑(a risk love)을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위기적인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주권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

언어들, 비유적 표현이나 또는 신인동형론적으로 보았던 구절들에 대해 문자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피녹은 일부 선택된 신인동형론적인 구절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하여 내러티브 안에 있는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였다.²¹ 내러티브는 진정한 인격적 상호관계를 묘사하며, 하나님의 내재적인 활동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진리에 독특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²²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2.3. 열린신학 논증

피녹은 1986년에 *Predestination & Free Will*을 통해 하나님의 제한된 지식을 선보인 후 1994년 *Most Moved Mover: The Openness of God*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열린신학이 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²³ 책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열린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 안에서, 인간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협력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역동적 관계로 참여하신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반응으로 관련되어 진다. 우리는 은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에 반응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위협

²⁰ Pinnock, *The Most Moved Mover*, 61.

²¹ 피녹은 성경에 내러티브 구절에 집중하였지만 성경의 교훈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보다는 구약에 나타난 신인동성형 성경구절에 문자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하나님 무제한적 예지하심을 다룬 성경구절보다는 창세기 22:12 등에 내러티브에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다루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미리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덜 강조하던지 아니면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

²² Pinnock, *The Most Moved Mover*, 20.

²³ 피녹은 하나님의 지식이 제한된다는 전제 아래, 하나님의 주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적 본질이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을 참고하시오. David Basinger and Randall Basinger, eds., *Predestination and Free Will: Four Views of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Freedom*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6), 145-62.

을 감수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자원과 능력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신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혼자 성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는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과 함께 역사한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로부터 상당한 입력을 원하며,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하여 미래 일을 이루어 나간다.²⁴

피녹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간다고 보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사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인간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미래를 열어 두시므로 현재시점에서는 하나님조차도 미래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다.²⁵ 피녹은 열린신학이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뛰어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²⁶

2.3.1. 성경적 논증

피녹은 열린신학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피녹은 “복음주의자로서 나의 기본적 헌신은 성경이며 전통이나 이성 또는 경험이 아니다”²⁷라고 명시하며 성경의 증거가 열린신학에 가장 근본적인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²⁴ Pinnock, *The Openness of God*, 7.

²⁵ Pinnock, *The Openness of God*, 8.

²⁶ 그 외 열린신학의 논증을 다룬 중요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Gregory Boyd, *God of the Possible: A Biblical Introduction to the Open View of Go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Boyd, *God at War :The Bible and Spiritual Conflic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1997); Boyd, *Satan and the Problem of Evil: Constructing A Trinitarian Warfar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Boyd, *Letters from a Skeptic: A Son Wrestles with His Father's Questions about Christianity* (Colorado Springs, Co.: Victor Cook Communications, 1994); John Sanders, *The God Who Risks: A Theology of Providenc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1998); David Basinger, *The Case for Freewill Theism: A Philosophical Assessmen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and William Hasker, *God, Time and Knowledge, Cornel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²⁷ Pinnock, *Most Mover Mover*, 19.

먼저 피녹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사역을 통해서 관계적이며 상호간에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제한하심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유의지를 허락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의 순복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미래를 열어두시고 하나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아담에게 죄와 악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모험을 결정하셨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상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실패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²⁹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미래를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께 개방되어 있다는 성경적 주제로서 신적 회개를 주목하였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창 6:6), 세상을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삼상 15:35)를 통해서 신적회회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피녹은 이러한 신적 회개에 관한 용어들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모든 일을 정한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³⁰

²⁸ Pinnock, *Most Mover Mover*, 19, 35.

²⁹ Pinnock, *Most Mover Mover*, 42

피녹은 미래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구절로서 열왕기하 20장 내러티브에 나타난 구절을 특히 주목한다. 이 본문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관계적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곧 죽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신다. 피녹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에 히스기야가 언제 죽을 것인지,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도리어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감을 묘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미래가 하나님의 마음에 미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미래는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아직 실재화 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³¹

또한 피녹은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이 예측이 빛나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유다가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perhaps) 생각이 있으리라’(겔 12:3)라와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네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렘 3:7)라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예측이 빛나갔다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성경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부분적인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성취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보았다. 이사야 5장에서 나타난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으나 정작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께 매우 실망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피녹은 성경적 예언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먼저 일부

³⁰ Pinnock, *Most Mover Mover*, 43. 피녹은 ‘신적 후회’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보았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회’에 관한 성경구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때때로 마음을 바꾸시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³¹ Pinnock, *Most Mover Mover*, 48.

예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다.³² 두 번째로 일부 예언들은 조건적이며 한편으로는 미래가 열려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8:9-10에서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라는 구절은 미래가 열려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직 하나님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본다.³³ 세 번째로 일부예언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측한 것은 예수님의 예지가 아닌 이스라엘의 시대적 정황을 통해서 무너질 것을 예측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녹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⁴ 성경적 예언의 일부는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갈 미래를 열어 두셨기 때문이다. 즉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고 보았다.³⁵ 하나님이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반응하고 대처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결정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알 수는 없다³⁶고 보았다.

³² Pinnock, *Most Mover Mover*, 50. 피녹이 주장하는 이 예언의 성취는 그의 자유의지론과 대치된다고 본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열린신학의 핵심과 어긋나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는 피녹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사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³³ Pinnock, *Most Mover Mover*, 50.

³⁴ Pinnock, *Most Mover Mover*, 51.

³⁵ Pinnock, *Most Mover Mover*, 44-45. 피녹은 하나님은 피조물의 진정성을 존중하며 또한 피조물로부터 진지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허락하신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또렷한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개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 행사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녹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청사진은 없다고 보았다.

2.3.2. 철학적 논증

피녹의 열린신학의 원동력은 인간의 자유의지론이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론은 모든 신학적 주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³⁷ 그러므로 열린신학을 자유의지 신론이라고도 부른다. 피녹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합당한 교리들만을 취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거부한다. 피녹이 언급하는 중요한 (significant) 또는 진정한(authentic)자유는 자유의지론적 자유를 두고 하는 말이다. 피녹의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진정한 자유의지를 부여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통해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로부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선택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감의 바탕이 되며 자신의 행위에 책임있는 존재로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내, 외부적으로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 때만이 인간 스스로 진정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녹은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유의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³⁶ Pinnock, *Most Mover Mover*, 100. 피녹은 인간의 자유의지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모든 미래의 일들을 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으며 또한 철학적으로도 부정적이라고 보았다.

³⁷ John M. Frame, *No Other God: A Response to Open Theism* (Wheaton: R & R Publishing, 2001), 119.

인간이 결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알 수가 없다. 그것들은 가능성에 해당하며, 실제화 되어야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의 일부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신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그 가능성을 접하게 될 뿐, 하나님에게조차도 미래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도 아직 알려지지 않는 미래로 이동하신다.³⁸

피녹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나 그 외의 어떤 것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기 전까지는 아직 자유의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녹은 하나님이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첫째, 미래에 일어날 자유행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둘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미리 알려질 수가 없다. 셋째,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행동은 미리 알려질 수가 없다. 넷째, 미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섯째, 따라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들은 하나님조차도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과거를 아는 것처럼 정확히 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순한 환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단순한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피녹은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론이 악에 문제에 관해 유일한 그 해답을 제시한다고 보았다.³⁹ 그는 신정론으로는 악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도

³⁸ Clark H. Pinnock "From August to Arminius: A Pilgrimage in Theology," in *The Grace of God, the Will of Man* (Grand Rapids: Zondervan, 1989), 25.

³⁹ 악의 문제는 신학적 논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고 주권적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도록 내버려두시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찾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악의 조성자로 만들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피녹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악도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⁴⁰ 즉 하나님은 악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 내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의 조성자도 아니다.

2.3.3. 신학적인 논증

피녹은 모든 신학적 교리 중에서 신론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신학적 논증을 통해서 전통적 신론을 재정의 함으로서 새로운 신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피녹은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① 하나님의 불변성

피녹은 전통적 신론의 불변성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즉, 전통적 신론은 플라톤의 철학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받았고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헬라의 자연철학이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¹ 그러므로 피녹은 헬라철

⁴⁰ 보다 자세한 악의 문제에 관한 자유의지론적 설명은 박태수, “열린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이해와 비평,” 「조직신학연구」 제12호 (2009년 가을 겨울호: 181-83) 참고

⁴¹ Pinnock, “From August to Arminius: A Pilgrimage in Theology,” 24.

학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 신론을 성경적 기독교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보았다.⁴²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인 부동자(Unmoved Mover)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세워졌다고 보았다. 즉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자사상은 기독교의 참 하나님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⁴³ 피녹은 이러한 신 플라톤 개념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침투하였다고 보았다. 어거스틴은 비록 많은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신 플라톤주의 사상이 결정적으로 그의 신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하나님을 철학의 상자 안에 가두어 두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았다.⁴⁴ 더 나아가 토마스 아퀴나스(Tomas Aquinas)의 신학 또한 하나님이 부동자(the Unmoved mover)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운동하고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원인자(原因子)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헬라철학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종교개혁자들도 신플라톤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녹은 하나님의 본질은 변치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변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경의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지, 부동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았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어 행동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나 신뢰성에 있어서는 불변하지만 다른 측면 즉, 역사에 대한 그의 대응은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피녹은 하나님은 사랑의 교통가운데서 자신에게는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상황이 바뀔에 따라 변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녹은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불변하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 변화하는 분이며, 변화를 만드는 분이요, 결코 고정된 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피조

⁴² Pinnock, *Most Moved Mover*, 74.

⁴³ Pinnock, *Most Moved Mover*, 68.

⁴⁴ Pinnock, *Most Moved Mover*, 101

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뜻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치 않으며 그의 목적도 신실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⁴⁵ 경험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며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시므로 뛰어난 적응을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변하심은 그의 속성의 완전성에 핵심이라고 보았다.⁴⁶

② 하나님의 주권

피녹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을 독점하시는 분이 아니다. 피조물에게 자율적인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지적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는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나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행사 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셨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시므로 피조물로 하여금 파트너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⁴⁷ 즉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함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과 협력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피녹은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목적들을 정하고 역사 속에서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주장한다. “만약 계획 A가 실패할 경우, 하나님은 계획 B를 준비 하신다.”⁴⁸ 그러므로 피녹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⁴⁵ Pinnock, *Most Moved Mover*, 87.

⁴⁶ Pinnock, *Most Moved Mover*, 88.

⁴⁷ Pinnock, *Openness of God*, 113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 되는 것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⁴⁹ 그러므로 피녹은 전통적 신론에서 받아드렸던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의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고 이해하였다.

③ 하나님의 영원성

피녹은 하나님의 시간성 즉,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의미이지만 시간 자체를 초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시간성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수 없는 분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단절시키며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하며, 하나님을 정지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⁵⁰고 보았다. 따라서 피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나님의 무시간성(timelessness)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⁵¹ 먼저 우리의 사고가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간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시간적으로 존재한다면 시간 내에 어떠한 계획을 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수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시간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험하시고 또한 미래가 개방된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역사와 상반된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무시간성이라면 어떻게 일시적인 실제 즉, 시간 안에 발생한 창조, 섭리, 구속과 같은 관련할 수 있

⁴⁸ Pinnock, *Openness of God*, 113

⁴⁹ Pinnock, *Openness of God*, 114.

⁵⁰ Pinnock, *Openness of God*, 121. 이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시간성적 존재라면 그의 지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전지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어거스틴, *The City of God*, 11, 21). 만약 하나님이 시간성적 존재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의 전체를 일시에 소유할 수 없는 분이 되고 만다. 삶의 경험들은 과거에 묻힐 것이고, 미래는 현재에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경험이 부족한 자가 되어 버리고 만다.

⁵¹ Pinnock, *Openness of God*, 119-21.

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무시간성 개념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간 안에서 이루신 분으로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 무시간 속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무시간 속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사건들의 연속성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영원성이 곧 무시간성이라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이 세상과 연관성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눅은 성경의 하나님은 무시간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것처럼 시간의 연속을 경험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즉 피눅은 비록 하나님은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와 일하시며 역사의 연속성과 관련을 맺고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시간을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눅은 하나님은 개방된 미래와 맞서게 된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것과 가능한 것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즉 과거는 실현된 것이고 현재는 되어지고 있는 것이며 미래는 다가올 가능성이 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은 시간의 경험 속에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예상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실현되도록 일하고 계신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건의 연속성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므로 하나님에게도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도 미래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미래는 개방되어 있다고 보았다.

2.4. 실천적 논증

피눅은 무엇보다 열린신학이 실천적부분에서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열린신학에 대한 유익함에 대해서 피눅은 몇 가지 관점

에서 열린신학의 실천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열린신학은 우리의 삶을 진지한 실제적 관점에서 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우 진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며 동시에 진정으로 상호협력하는 관계로서 우리가 그의 사랑에 반응하는 진정한 관계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⁵²

또한 피녹은 열린신학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신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⁵³ 이 자유는 통제하는 자유나 원인적 자유가 아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진정한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전통적 신관과는 달리 진정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⁴ 열린신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열린신학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 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피녹은 열린신학 틀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할 수도 있고 또한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관계를 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녹은 열린신학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현재에 그 선하심을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실패할 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하

⁵² Pinnock, *Most Moved Mover*, 158-59.

⁵³ Pinnock, *Most Moved Mover*, 162.

⁵⁴ 피녹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미리 알고 결정되어지는 신관은 결국 숙명론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인간의 자유는 단지 하나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유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결론: 열린신학에 대한 평가

필자는 지금까지 피녹의 열린 신학을 검토했다. 따라서 피녹의 신학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비평을 함으로 본 연구를 마감하고자 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호소를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대인의 감성과 자유의지를 자극하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반자적인 사랑의 관계로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둘째는 열린신학은 전통적 기독교 유신론보다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 대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또한 열린신학은 전통적 신학에서 강조 되지 않았던 신인동형론적인 성경구절에 대하여 보다 깊은 연구를 하게 하였다. 넷째, 무엇보다도 열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대한 더 많은 신학적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개신교 정통 보수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 피녹의 열린신학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첫째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피녹의 열린신학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믿고 고백하여 왔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교리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열린신학의 논리로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부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들은 불가분의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이 수정될 때 다른 모든 속성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주권성, 전지성뿐만 아니라 열린신학이 제시한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전통적 유신론과 명백한 차이

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⁵ 이는 교부들이나, 교회 신조, 신앙고백서 등에서 믿고 고백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열린 신학은 정통신학을 벗어난 심각한 오류를 가진 신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열린 신학은 하나님의 작정, 목적, 계획과 섭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녹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나 섭리가 완전하게 성취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열린신학이 제시한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수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의 작정과 계획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엡1:11)” 주권적인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피녹의 열린신학을 수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피녹은 하나님께서 섭리가운데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거와 현재의 지식으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하나님도 본의 아니게 예상치 못한 일을 직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⁵⁵ 예를 들면 전통적 유신론에서의 단순성은 하나님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본질상의 영으로 본 반면 열린신학에서는 하나님은 내적 복합성 안에 전체적 단일성에 의존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전통적인 신학이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의 연속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한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열린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의 연속성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권성도 전통적 견해와 달리 이해되어 지고 있다. 하나님은 주권적 통치를 하시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피조물의 협력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통치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시지는 않는다. 전능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태수, “열린 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이해와 비평”, 185-86 참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가운데 인간을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실패할 때는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피복의 신학적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칼빈주의 신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로 돌아섰고 최종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일관된 논리인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부정함으로써 열린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을 탄생시켰다. 그는 자신의 신학의 여정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현대인에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섬세한 새로운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였지만 열린신학의 하나님은 순간순간 배워야만 하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위기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를 추측해야 하는 하나님, 그러나 정확한 추측을 하지 못하여 자주 실패하는 하나님일 뿐이다.

하나님의 예지하심은 단지 신학적으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속성과, 목적, 섭리, 인도하심과 직결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지식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피복의 주장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비판이 더 필요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다룰 수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다음 논문을 통해 피복의 이론에 대한 성경적 반증을 제시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Basinger, David. *The Case for Freewill Theism: A Philosophical Assessment*.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6.
- Basinger, David and William Hasker. *God, Time and Knowledge*. Cornel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Religi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Basinger, David and Randall Basinger. (Eds.). *Predestination and Free Will: Four Views of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Freedom*.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6.
- Boyd, Gregory. *Letters from a Skeptic: A Son Wrestles with His Father's Questions about Christianity*. Colorado Springs, Co.: Victor Cook Communications, 1994.
- _____. *God at War: The Bible and Spiritual Conflic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7.
- _____. *God of the Possible: A Biblical Introduction to the Open View of God*.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 _____. *Satan and the Problem of Evil: Constructing A Trinitarian Warfar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 Frame, John. *No Other God: A Response to Open Theism*.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1.
- Geisler, Norman L. and H. Wayne House. *The Battle for God: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Neotheism*. Grand Rapid: Kregel Publications, 2001.
- Grenz, Stanley. "Fideistic Revelationalism: Donald Bloesch's Antirationalist Theological Method," In *Evangelical Theology in Transition: Theologians in Dialogue in Dialogue with Donald Bloesch*. (Ed.). Elmar M. Coly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Pinnock, Clark H. *A Defense of Biblical Infallibility*.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1967.

_____. *Set Forth Your Case*. Nutley, N.J.: Craig Press, 1968.

_____. *Biblical Revelation: The Foundation of Christian Theology*. Chicago: Moody Press, 1971.

_____. *Live Now, Brother*. Chicago: Moody Press, 1972a.

_____. *Truth on Fire: The Message of Galatia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2b.

_____. (Ed.). *Grace Unlimited*.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s, 1975.

_____. *Reason Enough: A Case for the Christian Faith*.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80.

_____. *The Scripture Principl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_____. *Three Keys to Spiritual Renewal*. Minneapolis: Bethany House, 1985.

_____. (Ed.). *The Grace of God, The Will of Man: A Case For Arminianism*. Grand Rapids: Zondervan, 1989.

_____. *Tracking the Maze: An Evangelical Perspective on Modern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90.

_____. *A Wideness in God's Mercy: The Finality of Jesus Christ in a World of Religion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_____. *The Openness of God: A Biblic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_____. *Flame of Lov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_____. *Most Moved Mover: A Theology of God's Opennes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1.

Pinnock, Clark H. and David F. Wells. (Eds.). *Toward a Theology for the Future*. Carol Stream, IL.: Creation House, 1971.

Pinnock, Clark H. and Delwin Brown. *Theological Crossfire: An Evangelical-Liberal Dialogue*. Grand Rapids: Zondervan, 1990.

Pinnock, Clark H. and John B. Cobb. *Searching for an Adequate God: A Dialogue Between Process and Free Will Theists*. Grand Rapids: Eerdmans, 2000.

Pinnock, Clark H. and Robert C. Brow. *Unbounded Love: A Good News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Sanders, John. *The God Who Risks: A Theology of Providenc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8.

Ware, Bruce A. *God's Lesser Glory: The Diminished God of Open Theism*. Wheaton: Crossway Books, 2000.

_____. *No Other God: A Response to Open Theism*.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01.

_____. *Their God is Too Small: Open Theism and the Understanding of Confidence in God*. Wheaton: Crossway Books, 2003.

박태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예지를 통한 열린신학에 대한 비평”. 『개혁논총』 3 (2005): 91-112.

_____. “복음주의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본 열린신학에 대한 비평”. 『조직신학연구』 11 (2008): 178-97, 180-203.

_____. “열린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이해와 비평”. 『조직신학연구』 12 (2009): 178-97.

_____. *A Biblical Response to Open Theism: Christology in the Four Gospels*. VDM, 2010.

Abstract

Clark H. Pinnock's Openness Theology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lark Pinnock,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ntroversial contemporary theologians and his openness theology. Having briefly described Pinnock's theological journey in his life and books, the paper presents Pinnock's hermeneutics in approaching his theology. His interpretative methods are various kinds such as the using risk and non-risk models; love as the control text of his theological work, and the literal interpretation on anthropomorphic passages.

The key issue on Clark Pinnock's openness theology is that the theology denies exhaustive divine foreknowledge concerning the free choices of humans. He appeals biblically to the Old and New Testament passages that traditionally been interpreted as containing anthropomorphic language. Seeking a literal sense to these text, Pinnock argues that God faces a partial open future. Philosophically, he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nature of human freedom and the problems of evil. Theologically, Pinnock raises a questions on God's attributes of the traditional theism such as omnipotence, immutability and eternity of God and reconstruct the doctrine of God.

Finally, the paper gives a critique of Pinnock's denial of God's foreknowledge of free choices of moral being. His open theism undermines serious theological implications such as the redefining God, the undermining unfailing God's purpose, plan, providence, a risk of the

fulfillment of divine predictions.

Key-Words : Openness Theology, Clark Pinnock, Future, God, Human Freedom, Foreknowledge